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정치부, 교육 담당, 농림부 담당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발신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안진걸 (019-279-4251) 정 덕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대표 (010-7148-1241)
제목	학교 부근 도박장, 학교 앞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날짜	2015. 6. 9(화) (총 13쪽)

보 도 자 료

학교 부근 주택가 화상도박장 반대 여론 더욱 높아져..작년 11월 81%반대에서 이번엔 85% 이상 반대 학교 앞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74%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
용산구민들과 서울시민들 끈질긴 투쟁이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개장 사실상 무산시켜
- 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무엇을 하고 있나? 끝까지 방치만..
- 마사회는 메르스 사태때문에라도 불특정 다중 도박시설인 화상도박장 임시폐장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 6.11(목) 2:3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예정. 을지로위원회 의원단과 함께 용산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학교보건법·마사회법 신속 개정 촉구. 용산주민들은 6.12~6.14 주말에도 강력한 저지 행동 지속할 예정

1. 주민들과 학부모·교육자들의 절규도, 누구의 말씀과 호소도,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도 모두 외면하고 무시하기만 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는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5/31(일), 6/5(금), 6/6(토), 6/7(일) 매번 수십여명의 경마도박객들만 입장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주민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호소를 하고 물리적인 원천 봉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경마도박객들마저도 학교 앞, 주택가, 도심 대로변의 화상도박장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호소를 듣고 발길을 들리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호소와 결연한 반도박장 투쟁이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전면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극심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2. 특히, 최근 메르스 확산사태라는 긴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불특정의 도박객들이 모여 ‘침 튀기며 흥분하고 소리치는’ 장소인 화상경마도박장은 메르스가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장소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사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최소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라도 임시 폐

장을 선언하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정한 조건 속에서 주민공동체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6월 12일~14일 주말에도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고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 그리고 각계각층 인사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 농성, 마사회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사회가 하루빨리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의 사회공헌 시설로 활용하길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또는 주민들이 제안한 해법인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6월 11일(목)에는 (오루 2시 반, 국회 본청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단이 국회 정론관에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마사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한편, 우리 국민들의 도심 화상도박장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은수미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가 황교안 총리 후보 인상청문회를 즈음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와, 민생·복지·경제·노동 관련 의제(사회·경제 분야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긴급히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학교 부근·주택가 화상도박장에 대해서는 85%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표명해주셨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동일한 조사해서 81%의 국민들이 반대한 것보다 더욱 높아진 수치입니다.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교육환경 파괴 행위를 비판하게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 앞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광호텔 설립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74%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이나 '친박'세력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도박장도 만들고, 관광호텔도 마구 추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5. 아래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마사회 규탄 및 항의 시민행동 일정,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 붙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향후 주요 일정

-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용산 주민들과 용산지역 NGO, 교육시민단체, 도박추방단체,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함께 마사회 저지 행동을 전개합니다.
- 금요일은 화상도박 시간이 12시 50분부터 7시까지여서, 11시반부터~7시 반까지 농성 및 항의 행동. 매주 금요일 5시에는 도박추방 미사도 열립니다. 용산주민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 토요일, 일요일은 화상도박 시간이 10시 50분부터 6시까지여서, 아침 9시 반부터~6시 반까지 농성하고 항의 집회 및 저지 행동을 전개. 매주 일요일 11시에도 도박추방 미사가 열리고, 용산지역 기독교 교구연합회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진행. 용산지역의 전 성당, 교회가 반대 대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이번 주말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등의 응원 방문 등도 계속될 예정이고, 각계각층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최근 문제점을 종합하는 보도자료도 낼 예정.
- 꼭 도박장 입구에서 온몸으로 저지하는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시민들이 용산 주민농성장을 응원

방문 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폭력으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도박을 대놓고 부추기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마사회를 꼭 함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여론조사 개요,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문항(2015. 6.7일 조사)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6월 7일(1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1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찬반 인식

문) 최근 마사회는 도심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서울 용산 도시에 입점 시키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학교와 주택가 부근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앞, 주택가 등 도시에 입점하는 것은 반대한다 85.1%
 >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면 도심 입점도 상관없다 9.1% [잘 모름 5.8%]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5.1%로 ‘상관없다’(9.1%)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도심 화상경마장]

(단위=%)



- ‘반대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상관없다’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반대	찬성	잘모름
전 체		(1000)	74.2	19.4	6.4
연령	19세~20대	(167)	74.2	23.2	2.6
	30대	(186)	79.8	13.8	6.4
	40대	(219)	82.4	15.2	2.5
	50대	(202)	72.6	22.3	5.1
	60대이상	(226)	62.9	22.8	14.2
성별	남성	(499)	70.7	24.0	5.3
	여성	(501)	77.6	14.9	7.5
지역	서울	(202)	73.4	22.1	4.5
	경기/인천	(294)	74.9	18.9	6.3
	대전/충청	(104)	76.7	15.4	8.0
	광주/전라	(94)	79.4	15.4	5.2
	부/울/경남	(160)	73.9	21.4	4.7
	대구/경북	(104)	70.6	18.1	11.3
	강원/제주	(42)	65.0	25.6	9.4

※ 별첨 2 :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명 중 8명(79.5%)이었으며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침.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81.0%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음.

1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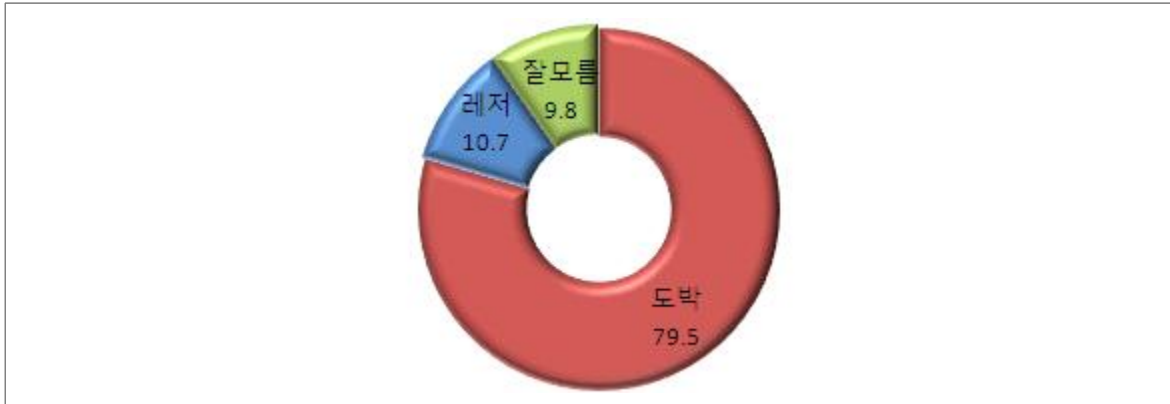
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레저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의 도박중독성이 높아 '도박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화상경마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팅이 이루어지므로 도박이다 79.5%
> 게임과 같은 것으로 레저이다 10.7% [모름 9.8%]

❖ 화상경마장에 대해 '도박이다'는 응답이 79.5%로 '레저이다'(10.7%)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화상경마장 인식]

(단위=%)



2 화상경마장 도심지역 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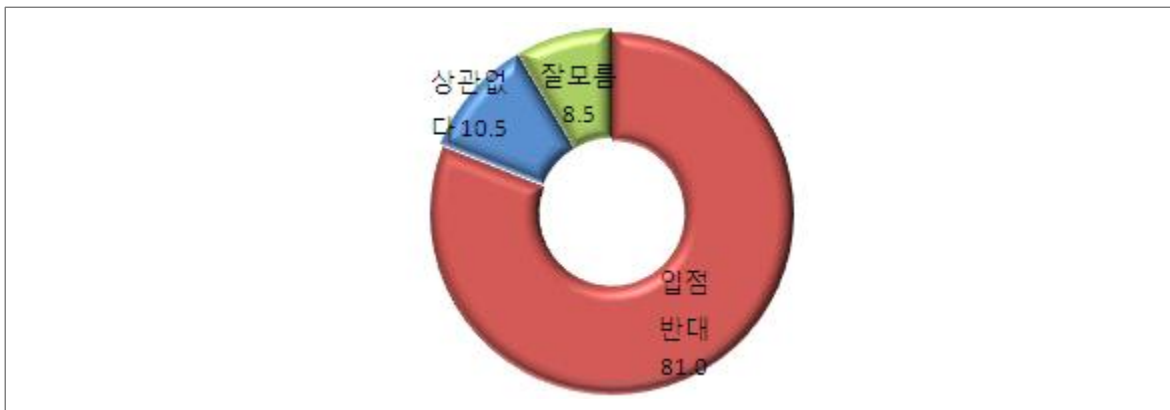
문) 최근 마사회는 도심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서울 용산 도심에 입점시켜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밀집 도심 입점에 반대한다 81.0%
 > 이용편의 위해 도심 입점 상관없다 10.5% (모름 8.5%)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0% 였으며, '이용편의를 위해 상관없다'는 응답은 10.5%에 그침.

[화상경마장 도심지역 입점]

(단위=%)



• '반대한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상관없다'는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48.5%로 '상관없다'(44.2%)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별첨 3 : 6.5일 용산 주민대책위, 정의당 등 공동 기자회견 자료

1. 용산 주민 500여명은 5/31(일)에 있었던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을 사실상 막아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전체 600여 개 가운 좌석 중에서 50여명의 도박객들만 입장할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합된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의 승리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승복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를 결정하여 더 이상의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오히려 학생들이 등하고 하는 평일인 금요일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는 이번에도 강력한 개장 저지 집회와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 마사회는 평일인 금요일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는 2014년 6월 임시 개장 때에도 학생들이 등하고 하는 금요일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평일 개장의 무소불위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만 용산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를 걱정하며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평일에는 등하고 하거나 학원에 가는 학생들과 도박객들이 마주칠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지난 여름 여고생과 마주친 도박객이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여고생에게 “너희들 때문에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복장규제가 생겼다. 그럼 반바지를 벗고 다니라?” 라는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3. 용산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확실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의 실패를 마사회에게 똑똑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주거권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단합되고 결연한 행동을 하는지 마사회는 이번 주말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은 온 몸을 던져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4. 이런 용산 주민들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용산구·서울시·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에서 용산 주민들을 지지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문을 발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여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용산구 의원님들이 지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정진후·서기호 국회의원님이 용원과 연대의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응원의 손길이 닿고 있는 가운데,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영 의원은 성명서 하나 발행하지 않고 있고, 용산 주민들이 투쟁하고 있는 이곳 농성장에도 한번 방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6/3(수) 진영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에도 만나주지 않고 보좌관을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진영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용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5.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 활동을 벌입니다. 마사회는 이번에는 지난 주에 보여줬던 것보다 더욱 격렬한 용산 주민들의 개장 저지 투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사회는 더 이상의 오명을 남기지 말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포기 및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 참조 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범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 봉천, 성북, 용산, 인천, 포천, 수원, 춘천, 동두천)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마사회 보고 문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박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을 5월 마지막주에 발매개시를 하겠다며 5월28일 국회에 보고문건을 통

해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마사회가 보고한 문건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일관된 보고문건이 과연 공기업이 작성한 문건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공기업의 수준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실망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작성된 마사회 보고 문건에 대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한 반박

-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사전협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단독]"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 "사감위와 이전 협의 안했으면서 협의했다고 발표"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 입력 : 2013.08.11 12:1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1112151023915&outlink=1>

또한 농림부 이전 승인신청시 학교와 실제거리는 235m인데 350m로 속이고, 지도에 있는 학교를 지워서 보고를 하고, '민원발생개연성이 없다' 라고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으며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제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사저널 2012.10 기사 참조)그리고 본장 대 장외의 매출비율은 현 수준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만큼 정부(농림부)의 이전 승인 철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 승인과정부터 거짓으로 이루어진 승인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 마사회는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총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찬성주민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노인잔치를 하면서 설명회를 같이 하고 심지어 잔치에 참여한 어르신은 그런 설명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방문한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명회를 해놓고 거짓보고를 하는 마사회가 정말 공기업이 맞는지 의아할뿐입니다. 용산주민 17만이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는 주민 중 설명회를 들은 주민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 마사회는 시범운영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사회가 평가단을 구성했고 마사회 돈으로 운영되는 평가단은 공정한 평가단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발표한 결과는 (1등급 매우 긍정, 9등급 매우 부정, 중간 5등급) 4.10 등급(100점으로 환산하면 50점이 조금 넘는 점수입니다)으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을 받았습니다. 국가고시도 60점은 넘어야 합격입니다. 60점도 안되는 점수로 긍정이라고 말하는 마사회가 엘리트 집단 공기업이 맞나요?

2. 소통 및 친화 활동 전개에 대한 반박

- 마사회는 대책위가 정치적 성향 인사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부모, 교사, 주민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정치적 성향 인사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 발언에 대해 마사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매주 집회가 열리는 토,일요일에 건물 2층에서 불법 채증을 합니다. 휴대폰 3~4대로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촬영합니다. 불법 채증을 할 때 마사회 직원들도 학부모, 주민, 교사가 나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정치인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마사회는 어떤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찬성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마사회는 주민 22명을 업무방해등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그 후 언론에 대화를 위해 모두 취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 한명의 형사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민을 고발한 마사회 직원은 전치8주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찬성집회 때 버젓이 나와 주민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 마사회는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교회, 직능단체, 지역신문 등 오피니언 리더와 면담을 시행 했다고 했는데 용산구청장, 구의원, 용산구 교회 및 성당에서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와 면담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마사회는 용산에 기부금 등으로 5.4 억원 지원,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는데 46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용산구민 숫자는 25만입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계약직 46명의 고용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 발매개시 계획 및 대책

- 마사회는 건물전체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경마일인 금~일에는 일부층을 객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곳에 키즈월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화상경마장은 19세 미만 출입금지업소**입니다. 이런 곳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것은 19세미만 출입금지업소를 위반하는 것이며 향후 잠재고객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입니다. 결코 문화센터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카바레에서 낮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 공부하게 하고 밤에는 카바레 영업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니까? 도박장을 문화센터로 포장한다고 해도 도박장은 도박장일뿐입니다.
- 마사회는 안전, 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녀가 몇 명씩 빨간 봉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마사회도 화상경마장이 운영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화상경마장이 진정한 레저라면 안전, 환경지킴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화상경마장에서 교육, 생활, 교통,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 화상경마장이 개장한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월28일 기습개장 때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주변에는 불법오토바이가 기습을 부렸고 경마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담배연기로 주변은 매캐한 공기로 가득 찼으며 보이지 않던 노숙자가 등장했고 심지어 여고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복장규제가 생겼다. 그럼 바지를 벗고 다니랴?” 라는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고작 400명이 왔을 때도 이정도 인데 정식 개장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두려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사회는 단 한번 용산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늘 용산 주민들의 기대를 깨뜨리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고소고발을 하고 마사회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몰래 하려다 실패하고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 학부모를 위협하고 경비를 할 수 없는 성범죄 전과자를 경비로 채용해 학부모들과 대치를 시켰습니다. 또한 17만 용산 주민이 반대하는데 극히 일부 주민만 반대한다고 보고를 하는 등 마사회는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화상경마장 바로 앞에 여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는 이곳을 학부모라면 주민이라면 누구든 우리의 아이들과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박의 한탕 주의를 심어주기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훨씬 소중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사회는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그 학부모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날 짜	사 건	참 고
2009-11-08	‘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 협약서’ 체결 (랜드마크디앤엠과 마사회)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마사회가 매입 조건
2010-02-28	장외 발매소 이전 신청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역에서 한강로 3가 16-48로
2010-03-10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 120미터를 늘려서 학교와의 거리를 350미터로 보고 - 보고서에 첨부한 지도에 학교는 빠져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8년 종합계획원칙 위배 (외곽이전, 축소원칙) - 사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 위반
2010-05-20	용산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설혜영, 오천진, 권용하의원이 심의위원들이 심의시 그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모르고 있음을 밝혀냄
2010-06-15	용산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2010-06-30	용산구청 건축허가 (문화집회시설, 업무, 근린생활시설)	박장규 전 구청장의 임기만료일
2010-11-23	경찰이 마사회 장외처장 김모씨와 시행사 윤모씨를 구속 기소	뇌물 수수
2011-09-08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업무, 근생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 발매소))	건축주가 랜드마크디앤엠에서 코란코투자신탁으로 변경(서초구 화상경마장 시행사와 동일)
2012-09-26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용산구청은 일련의 과정을 주민이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전혀 알리지 않고 상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었음.
2012-12-28	한강로 3가 16-48 마사회로 소유권 이전	시세보다 357억이나 비싸게 매입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3년)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총신교회, 저녁 7시)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용산구민참여 문화제”(전자랜드 옆, 1천명 참여)
2013-10-2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위해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 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 (6. 16)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
2014-06-28 ~29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 주민간담회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청운동사무소)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및 마사회가 운영하는 임시개장 평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경마공원과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 및 참고인출석 -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서울시경 조사 결정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 주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선정하고, 285명 입장한 1개월 시범개장에서라도 낙제점 -용산화상경마장은 철회가 정답)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600일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25	크리스마스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12-28	2014년 활동보고 및 201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2014-01-30 ~31	주민대책위 용산구 노인정 연말 인사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1-0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신년 미사 및 떡국 식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1-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영원 108배 진행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1-21	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2-15	설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4-05	도박추방의 날 행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5-17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 주민 문화제 예정 (오후 6시, 농성장 앞)
현 재	<p>매일 천막노숙농성</p> <p>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p> <p>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11시 용산교구연합기도회</p> <p>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p> <p>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p>